

국회기록보존소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to Vitalize Academic User Service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in South Korea

장윤서 (Yunseo Jang)**

김지현 (Jihyun Kim)***

초 록

국회기록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증거로써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 공공기록 중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업무상의 참고자료 혹은 증빙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술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학술 정보 이용자는 우리 사회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간접적 혁신을 이끌 수 있으며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다면 기록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열람과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의 학술 정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미국과 영국의 입법 아카이브센터 사례조사,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 담당 실무자 2명과 국회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해 본 이용자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원문 구축 확대와 국회기록보존소 홍보를 통한 국회기록보존소 인식 개선과 국회사무처와 협력체계 구축, 주제별 국회기록 제공, 국회기록 수집 및 분석 지원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강화, 개인화 서비스와 연구가이드를 통한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valuable public records because it has great value as a historical evidence of democracy. Therefore, it is not only used as a reference or evidence for work, but also used for academic purposes. Academic information users can improve their intellectual skills in our society, lead to indirect innovation, and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o them, which can increase the continuous viewing and utilization rate of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plan to activate the academic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Preservation Center, which is in charge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To this e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ractitioners in charge of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and services a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users of academic information. It proposed improving awar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strengthening online services, and customized user services.

키워드: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 기록정보서비스, 학술 정보 이용자
national assembly archives, national assembly records, archival reference service,
academic users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wkddjsw5990@naver.com)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jh@ewha.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1년 8월 16일 ■ 최초심사일자: 2021년 9월 15일 ■ 게재확정일자: 2021년 9월 23일

■ 정보관리학회지, 38(3), 41-71, 2021.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3.041>

※ Copyright © 2021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부로 국민을 대표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국가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심의 결정권, 국정감사 조사권 등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막대한 책임을 가지는 국회에서 생산, 보유하는 국회기록은 어느 국가에서든 가장 가치 있는 기록으로 간주되는 공공기록이다. 국회기록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증거로써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 위임된 책무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기록물관리기관은 이러한 국회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경우 상기 법 조항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국회도서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회기록보존소를 통해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국회기록보존소, 2021).

국회에서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회기록은 예·결산안, 회의록, 의안, 국정감사·조사보고서 등의 입법활동기록이다. 현재 다수의 입법활동기록은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주로 서비스되고 있다.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국정감사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으로 연결시켜주며 각 시스템에서 국회기록을 제공한다. 기

록정보서비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회에서 이러한 1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시스템마다 분산된 검색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국회기록을 찾기 어렵고,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정은희, 차미경, 2020).

공공기록은 기관의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직무 수행의 결과물이므로 그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반영하고 있다. 공공기록은 이를 생산한 기관에서 업무상의 참고자료나 증빙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그 기록에 포함된 사건, 인물, 장소, 주제 등에 관한 정보는 연구자나 역사가들에게 큰 가치를 가진다(이원영, 2002). 학술 정보 이용자는 기록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에 지적 능력을 높이고 간접이용자를 창출하여 기록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기록의 열람과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술 정보 이용자들이 기록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기록관리 기관의 직원서비스와 통합검색의 검색결과 등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2013; 성면섭, 이해영, 2020; 윤은하 외, 2014). 특히 국회기록의 가치와 학술 정보 이용자가 불러올 수 있는 부가가치에 비해 국회기록을 학술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학술 정보 이용자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회기록을 담당하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학술이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회기록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보존

소 서비스 실무자와 국회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해 본 이용자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여 국회기록보존소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 목적의 이용자가 국회기록을 활용했을 때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국회기록보존소의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사례조사,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국회기록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국회기록보존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기록의 범위를 입법활동기록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핵심 기능을 반영하고 있고 국회기록 중 일반 이용자에게 가장 많이 공개되어 있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술 정보 이용자들의 특성과 이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사례조사에서는 해외의 입법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의회기록정보서비스의 모범사례로 제시된 미국 입법 아카이브센터(The 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와 가장 오래된 의회 역사를 가진 영국 의회아카이브(UK Parliament Archives)를 선정하였다. 셋째,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 실무자와 국회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비스 담당 실무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국회기록정보서비스의

전반적인 업무 현황과 향후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정보서비스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이용자의 경우 문헌정보학 또는 기록학 전공자를 제외한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로 국회기록을 활용하여 KCI 등재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8명을 학술 정보 이용자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요구, 국회기록정보서비스의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이용자 관점에서의 국회기록의 이용 현황, 요구사항 및 인식을 파악하였다.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및 인터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국회기록과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2.1 국회기록과 국회기록보존소

2.1.1 국회기록의 정의와 유형

국회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대표자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타 공공기관과 다르게 국민을 대표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입법기능, 국정감독기능, 의원 정치활동 등의 고유기능을 가진다(이원영, 2002).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산되는 기록들은 국회의 조직과 기능의 증거로서 유용한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를 이해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 보존되어 후대에 전승되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회기

록을 관리하고 있다. 동 규칙 제7조에서 국회기록은 국회 소속기관에서 생산하는 공식적인 업무활동관련 기록물, 국회의 제도·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 각기록물, 국회의장·부의장·위원회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주요 업무 활동 관련 기록물, 그 밖에 국회도서관장이 국회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으로 정의하였다. 즉 국회의장, 부의장, 위원회 위원장, 국회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은 모두 국회기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원영(2002)은 국회기록을 일반적 의회기록으로 칭하고 입법활동기록, 의원기록, 의회행정운영기록, 보조인·보조조직기록으로 나누어 범주화 하였다. 이후 정태영과 김유승(2012)은 의회기록의 중요도에 따라 위의 4가지로 범주화된 기록들을 본기능과 보조기능에 대한 기록으로 재구성하였고 입법활동기록과 의원기록은 본기능에서, 의회행정운영기록과 보조인·보조조직기록은 보조기능에서 생산되는 기록으로 구분하였다. 국회에서는 수많은 기록물을 생산하지만 이러한 국회기록들이 모두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제1항과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 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한정된 기록물만 이용자에게 공개된다. 이렇게 공개된 국회기록의 대부분은 의회 핵심 기능과 관련된 입법활동기록이다.

입법활동기록은 국회에서 법률 제정에 도달할 때까지의 의사결정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

는 기록을 포함하여 국정감사 조사와 관련한 문서 및 대정부 질문 관련 문서와 공공기관의 각종 보고서,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청원 및 진정서를 처리 기록과 국제 협력관계 기록 등을 포함한다(이원영, 2002). 법률안이 처리되는 입법과정에서는 수많은 토론, 심사, 의결 등이 진행되며 최근 의원의 발의 법안이 급증하면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이 많아짐에 따라 입법활동기록의 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자투표 데이터 세트 기록, 웹 및 모바일 콘텐츠 등 기록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1.2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과 특성

공공기록물법 제10조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4조에 준거하여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는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소속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가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국회기록보존소, 2021). 그뿐만 아니라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 각 소속기관의 기록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정당 등 주요 의정활동 주체의 기록물도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민간 영역의 기록관과 같이 수집형 아카이브 기능까지 포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장환, 이은별, 2015).

본 연구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은 「국회도서관 직제」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감독, '국회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유승과 김장환(2013)은 국가기록원의 공공표준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 운영 절차'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보존에 관한 업무에 인력 및 자원이 집중되어 있었고 기록정보서비스, 기록관리교육, 전자기록관리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핵심 업무에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2016년부터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던 서비스적 측면에서 개선을 이루어 왔다. 홈페이지에는 국회 소속기관에서 이관한 기록과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기록, 국회사 연표, 국회기록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사이버전 시관, 국회간행물 등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구축한 주요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도모하고, 입법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실현을 위하여 국회기록물 대국민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2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2.2.1 학술 정보 이용자와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이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용자 유형 중 학술 정보 이용자들은

기록의 보존을 중시하던 이전 시대부터 기록 이용을 중시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기관의 주요 이용자이자 잠재적 이용자로 인식되어 왔다(임여아, 2008).

학술 정보 이용자가 기록을 이용함으로써 기록의 내용은 2차 자료로 가공되며 이러한 2차 자료를 통해 기록을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지식정보를 전달받는 간접 이용자들이 발생된다. 간접 이용자들은 기록관에 방문하지 않으면서도 학술 정보 이용자들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직접 이용하여 산출한 2차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Pugh, 2004, 31-44). 이처럼 학술 정보 이용자들이 기록을 이용하여 양질의 지식정보를 창출할 경우 사회의 지적 능력을 높이고 기록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윤은하, 2014). 또한 기록관리기관 입장에서도 학술 정보 이용자에게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록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열람과 기존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의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용률의 증가는 기록관리기관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높일 수 있게 한다(조윤희, 2007).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록관에서 학술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자 집단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학술 정보 이용자의 기록 이용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고려했을 때 중요한 이용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은 학술 정보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의되는데 임여아(2008)는 기록관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지원서비스를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김지현(2013)은 검색 및 열람 서비스와 함께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 대학연계 프로그램, 세미나 및 강연회 등도 연구지원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김태영 외(2014)는 학술 정보 이용자와 아키비스트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연구 생애 주기 모델에 따라 서비스를 분류하였다.

학술 정보 이용자들의 기록 접근 방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학술 정보 이용자들은 출판된 자료의 각주와 참고 문헌에 따라 원자료의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출판된 서지나 검색도구 및 가이드를 이용해왔다(Tibbo, 2003).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 대다수의 학술 정보 이용자들이 웹을 통해 기록에 접근하고, 웹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기록을 탐색하고 있다(Rhee, 2015). 물리적인 기록관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온라인상에서 학술 정보 이용자의 기록 접근과 이용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학술 정보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는 검색서비스, 기록 열람 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세부 서비스는 <표 1>과 같다.

2.3 국회기록보존소의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필요성

공공기록물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기술·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기록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기록정보서비스의 기능을 제시한 국가기록원 공공표준으로는 2018년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1)」(이하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과 2020년에 개정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기능 및 업무절차(v2.1)」(이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가 있다.

<표 1>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세부 내용	
검색서비스	(1) 소장기록물 목록 (3) 주제가이드 및 색인	(2) 검색도구 (4) 간행물 서지사항
열람서비스	(1) 온라인 소장기록물 제공 (3) 방문 안내 사항 (5) 새로 공개·재분류된 기록 안내	(2) 열람 정책 및 규제 (4) 서비스 범위 (6) Ask an archivist
연구지원서비스	(1) 심층 면담 서비스 (3) 연구자 견학 (5) 대학연계 프로그램 (7) 인용 및 저작권 안내 (9) 편집 및 출판 지원 (11) 학술 DB 운영	(2) 전문 기록조사 연구원 연계 (4)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 (6) 학술 회의 및 포럼 개최 (8) 연구용 온라인 콘텐츠 및 통계자료 제공 (10) 연구가이드

출처: 김지현(2013); 김태영 외(2014);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2006); 임여아(2008) 논문 재구성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에서는 소장기록물 서비스 기능과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공동체의 요구와 관심을 잘 이해하고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만족될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표준에서는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이용자의 만족을 위한 서비스 정책수립과 설계,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및 지원, 점검과 개선을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록물 서비스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설정과 특성 및 정보요구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이용자 수요에 맞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Aronsson(1981)에 따르면 학술 정보 이용자들은 의회기록을 사용하려고 할 때 여러 문제에 직면한다고 하였다. 의원 조직의 구조상 기록물의 검색이 어렵고 의원 문서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기록물의 이용이 곤란하고 의회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였을 때 학술 정보 이용자들이 다른 공공기록 보다 국회기록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술 정보 이용자가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기록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학술 정보 이용자들의 과급효과와 국회기록의 연구적 가치를 참고하였을 때 학술 정보 이용자들이 보다 원활히 국회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기록보존소는 공동체의 요구와 관심을 잘 이해하고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만족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술 정보 이용자가 국회기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고 국회기록의 활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해외 사례 및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 현황 분석

기록관에서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적 가치가 있는 기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기록정보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물리적인 공간인 기록관에서 공간에 제약이 없는 웹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해외 의회기록 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또한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서비스 현황과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해외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의회기록정보서비스의 모범사례로 제시된 미국 입법 아카이브센터(The 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와 가장 오래된 의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의회아카이브(UK Parliament Archives)를 선정하였다. 사례조사는 학술 이용자 정보 서비스 유형에 따라 검색서비스, 열람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 분석을 위해 서비스 담당 실무자 2명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기록을 이용하여 KCI 등재지에 학술논문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8명을 대상으로 국회기록 이용 경험과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3.1 미국과 영국의 입법 아카이브센터

미국의 의회기록은 연방정부 기관과 부서의 공식기록을 수집, 보존하고 있는 미국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의 산하기관인 미국 입법 아카이브센터(The Center for Legislative Archives, 이하 CLA)에 의해 수집, 보존되고 있다. CLA가 관리하는 미국 의회기록은 선거구나 주(state), 연방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연방체제의 기록을 포함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연방정부 산하기관 간의 권력 분립을 투영해 역사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즉 CLA가 관리하는 의회기록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Miller, 2019). 이에 따라 CLA는 학자, 입법 의도를 찾는 변호사, 개별 청원을 하는 족보학자 등 의회기록을 요구하는 학술 정보 이용자들에게 연구 정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입법기록물관리기관은 의회 직속 부속 기구인 영국 의회아카이브(UK Parliament Archives; 이하 PA)이다. PA는 정부 부서(공무원), 정부, 항소법원, 대법원의 기록 또는 1497년 이전의 의회기록(The Chancery)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률, 의사록 등 공식적인 기록이 포함된 상원 하원의 기록, 의전부 장관(Lord Great Chamberlain)의 기록, 의회의 역

사기록 등 의회와 관련된 컬렉션, 전직 총리의 메모, 정치기관과 압력 단체의 기록 컬렉션 등 다양한 기록을 소장하고 있다(김유승, 설문원, 2013). 이러한 기록들은 일반 시민이 접근 가능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3.1.1 검색서비스

1) 소장기록물 목록

CLA에서는 학술 정보 이용자를 위하여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하원, 상원, 공동위원회 등 생산자별 기록물과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각 생산자별 카테고리는 하위 카테고리로 이어지며 하위 카테고리는 위원회 유형(상임, 특별 등)과 행정사무소에 따른 목록으로 나누어진다. 위원회 유형으로 범주화 되어 있는 목록에서는 각 유형에 속하는 위원회를 나열하여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해당 목록과 기록에 대한 개요, 각 위원회의 관할권, 역사 및 기록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PA 또한 소장기록물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15세기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지역, 국가 및 국제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자료를 5개의 주요 수집 영역으로 나누어 의회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수집 영역인 “하원과 상원”, “웨스트민스터 궁전”, “의회 관련 협회 및 직원 기록”, “개인문서” 컬렉션들은 각 주제별로 가장 중요한 시리즈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록의 형식과 기록 이용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웹 아카이브” 컬렉션은 다른 수집 컬렉션과는 달리 의회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기록을 수집하여 제공한다.

미래의 학술 정보 이용자와 대중에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접근이 불가능해진 웹 기록을 제공하여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집 컬렉션은 의회가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추적할 수 있어 학술 정보 이용자가 의회문서만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검색도구

CLA의 검색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의회 조직의 명칭 등을 감안하여 비공식적인 이름과 닉네임으로 검색을 하더라도 비공식 이름에 공식 이름의 참조를 포함시켜 검색 시 공식 이름으로 변경되어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키워드 검색, 제한 검색, 검색 연산자에 대한 검색팁을 제공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의회 기록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웹 사이트 검색 후 연결되는 National Archives Catalog는 의회기록을 포함하여 NARA에서 제공하는 National Archives 정보자원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든 카탈로그 기록과 전자파일, ERA(Electronic Records Archives)의 기록, 웹 사이트도 검색 가능하다. 필요한 기록을 찾았다면 로그인 과정을 거쳐 보관하고 싶은 시리즈나 파일을 모아 개인 목록함을 만들 수 있고 태그(tags)기능을 통해 태그를 부여한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용자가 한 눈에 기록을 살펴는데 유용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기 전 한 번 더 선별할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어 광범위한 기록을 열람해야 하는 학술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다.

PA의 웹 사이트에서는 키워드 검색, 결과 필터링,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 표시, 고급 검색, 검색 개선, 블리언 검색, 특정 필드 검색을 이용할 수 있다. PA는 도서관과 다른 기록관의 검색을 어려워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기록관에서의 검색 방법과 검색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록을 탐색할 때 이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기록 계층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넓은 시각으로 기록을 열람하기 원하는 학술 정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록관을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의 기록 이용 탐색 지침이 될 수 있다.

3.1.2 열람서비스

1) 온라인 소장기록물 제공

CLA는 소장 의회기록 중 1% 미만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문서기록 뿐만 아니라 CLA는 매 의회가 끝날 때마다 온라인에서 의회가 대중과 소통하는 부분을 포착하여 의회 웹 수집(Congressional Web Harvest)을 실시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용자가 웹 사이트의 코드와 프로그래밍을 정확하게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사용하는 크롤링 도구 기능 및 서버 환경, 기능 제한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PA는 디지털화 과정을 통해 온라인에서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웹 사이트에서는 소장 기록물을 6개로 범주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PA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더 많은 기록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PA의 2019-2020 Annual Review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3TB 이상의 많

은 데이터를 디지털 컬렉션에 추가하였다. 현재 PA의 카탈로그에는 26만 건이 넘는 디지털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기록이 온라인으로 학술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Parliamentary Archives, 2020).

2) 열람 정책 및 규제

CLA의 보유 기록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록 생성자가 설정한 접근 정책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 때문에 각 기록 유형별로 접근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CLA는 공개 기록과 비공개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열람하기 전 개인정보보호 또는 기타 제한 사항 확인 등의 이유로 접근 규칙을 준수하고 연구 방문 전 센터에 연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PA의 접근 규제에서는 의회의 모든 문서가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언급하고 있다. 일부 기록은 대중에게 비공개로 표시되나 원하는 의회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정보공개 요청으로 처리되어 요청한 기록의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신청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3) 방문 안내 사항

CLA 방문을 계획하기 전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기관에 연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아키비스트와 통화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안내하고 있으며 CLA의 위치와 방문하였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를 위한 링크를 별도로 제공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사항에 접근할 수 있다.

PA는 일반인들이 대부분의 의회기록에 무

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웹 사이트에서 방문 안내 및 열람 정책에 대한 규제를 안내하고 있다.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고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이 따라야 하는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목록을 통해 검색한 후 이용을 원하는 의회기록을 찾았다면 표제와 해당 목록의 참조를 기입하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좌석을 예약하여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3.1.3 연구지원서비스

1) 심층면담서비스

CLA를 이용하는 학술 정보 이용자는 사전 연락 후 방문하면 참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오리엔테이션과 연구실도 지원하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인 연구실 규칙 등을 웹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의회기록을 이용할 때도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키비스트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CLA 웹 사이트의 눈에 띄는 곳곳에 아키비스트와 연락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2) 학술 발표 개최

CLA는 미국 하원과 상원의 기록을 주제로 하는 학술 발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National Archives의 YouTube 채널과 CLA 웹 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주제 분야의 연구자들이 의회기록을 활용하여 저술 활동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인용 및 저작권 안내

CLA는 비공개 의회기록 인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연구 목적으로 비공개 의회기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용기록에 대한 파일 단위, 시리즈, 의회, 기록그룹 및 저장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NARA에서 제공하는 인용가이드에 대한 링크를 통해 인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PA에서는 의회기록을 이용할 때 인용 및 저작권을 5가지로 범주화하여 안내하고 있다. 먼저 출판물 웹 사이트에서 이미지 사용에 대한 안내 중 PA에서 제공하는 사본은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상업적 연구 또는 개인 연구 및 저작권에 대한 기타 예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기록의 인용(Quotations)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식적 허가 없이 어떤 출처에서든 인용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원본 기록의 인용(Citations of Original Records)과 의회 간행물 인용(Citations of Parliamentary Publications)에서는 이용자가 원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적절한 인용 표시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인용 시 기입해야 하는 사항들을 예시를 통하여 학술 정보 이용자가 수월하게 인용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작권(Copyright)에서는 PA의 사본, 비공개 자료, 의회 간행물, 제3자가 만든 개인 컬렉션 및 아카이브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복잡하기 때문에 각 기록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4) 연구가이드

CLA는 학술 정보 이용자를 위한 연구가이

드와 연구를 위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한다. 연구가이드는 미국 하원, 상원, 위원회의 기록으로 분류하여 생산자 별 가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각각의 연구가이드에서는 목차가 제시되어 연구가이드 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상세한 목차와 간단한 목차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이드를 이용할 때 관련 자료와 웹 사이트, 부록, 가이드 내 검색기능 등을 제공하여 가이드 자체에 대한 이용도 편리하게 유지하고 있다.

PA 또한 연구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조사된 주제 및 문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주제에 대해서 “가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기록인가요?”, “기록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나요?”, “연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다.

3.2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 현황 및 이용자 인식 조사

3.2.1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보서비스 현황 및 전망

국회기록보존소 내 기록정보서비스 업무 현황과 향후 기록정보서비스와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서비스 담당 실무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2명이며 실무자 A와 실무자 B로 지칭하였다.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서비스팀은 기록정보서비스와 공개여부, 분류 및 열람 등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경험을 고려하여 열람과 기록정보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국회기록보존소 내 기록정보서비스 업무 현황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에게 국회기록보존소 내 기록정보서비스 업무에서의 현황 및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열람서비스,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예산과 인력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 열람서비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기록 열람이 가능하던 국회기록보존소는 2020년부터 대국민 열람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열람서비스는 정보공개청구와 다르게 비공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신청서에는 열람 목적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기록을 열람 신청할 때 열람 목적을 묻는 이유에 대해서 실무자는 비공개 기록의 경우에는 이용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을 제재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열람 목적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답하였다. 이처럼 기록 이용의 목적을 파악하면 일반 열람, 업무적 열람, 학술적 열람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달리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새로운 이용자 서비스를 제안할 수도 있게 된다.

실무자들은 국회기록 열람서비스가 시작된 계기로, 학술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당일 신청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에서 출발했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 이용자들의 국회기록 이용 목적 등을 파악하고 기록물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실무자 A는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다른 경로로 편리한 절차를 통하여 국회기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그러한 이유로 열람실과 열람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들은 국회기록을 일반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등의 문제로 열람실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되면서 고심 끝에 완성된 열람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하였다.

실무자들은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고 비활성화된 것에 대해서 일반 이용자에게 국회기록을 서비스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국회기록은 재판이나 연구의 목적이 없다면 일반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흥미나 재미를 유발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2)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현재 국회기록은 각 소속기관마다 국회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그중 대부분의 국회정보사이트는 국회도서관과 국회사무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의안과와 속기과 등에서 생산되는 회의록과 의안 등을 바로 사무처에서 제공하는 국회정보사이트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서 제공하는 기록의 대부분은 공개가 원칙이며 회의록과 의안 등 가장 기본이 되는 국회기록이므로 일반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 자체적으로 만든 시스템이기에 데이터에 관한 부분 또한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국회기록을 이용했을 때 생성되는 이용자 데이터를 국회기록보존소에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회사무처에서 구축한 국회기록 DB를 국회기록보존소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협력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실무자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국회사무처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이용할 때 국회사무처에 요청을 보내 협의한 후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협의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국회기록보존소 웹 사이트에 국회사무처의 국회회의록시스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어도 링크를 걸어 사용하는 방법으로만 허용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용자에게 더 나은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3) 예산 및 인력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정책과 8명과 기록관리과 1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같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기록보존서비스부 서비스정책과만 2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국가기록원은 행정부 전체의 영구기록물을 관리하고 서비스하고 있어 더 큰 범위라고 볼 수 있지만 국회기록보존소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소속기관의 기록관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영구기록물과 현용·준현용기록물을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기록의 양이 국가기록원 만큼이나 많다. 이에 따라 현재 인력으로 관리부터 서비스까지 수행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실무자들은 만약 예산과 인력이 주어진다면 기록물을 더 많이 검수할 수 있게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자료를 분류할 수 있으며 부분공개 기록들도 개인정보나 기밀을 가리는 기술을 도입하여 실행한다면 공개 가능한 원문 구축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기록정보콘텐츠를 웹에 게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더 자주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제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국회기록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부분공개 기록들은 개인정보랑 여러 기밀 정보를 가려서 홈페이지에 오픈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처리하는데 그게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실무자 A)

2) 국회기록보존소 내 기록정보서비스 업무 현황

(1) 이용자 분석

국회기록보존소는 2016년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대국민 열람서비스는 2020년부터 시작하여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열람서비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용자에 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었으며 실무자들은 이용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용자 조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용자 분석에서 대부분의 열람 신청은 내부 이용자의 업무 부서에서 필요한 문서를 열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반 이용자는 열람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계적으로 추적하고 서비스에 활용할 데이터를 찾기 힘들다고 하였다.

“우리한테 열람 신청이 들어오는 건 생산 부서가 이전 문서를 보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서비스에 많이 활용할 만한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요.” (실무자 B)

실무자들은 국가기록원에 개인의 문서나 국민과 더 가까운 문서가 존재한다면 국회기록보존소는 역사적 사료들이나 법을 제정하면서 발생한 행정 문서가 많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국회기록이 일반 이용자들보다는 학술 정보 이용자가 더 많이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문서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앞서 업무 현황에서 언급하였듯 이용률이 낮고 국회기록에 흥미를 느끼게 하여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학술 정보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2) 향후 기록정보서비스

실무자들에 따르면 국회기록보존소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기록을 전공한 학생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록 실무자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공자가 아니라면 국회기록보존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무자들은 국회기록보존소가 폐쇄적이고 어려운 이미지에서 조금 더 개방적인 이미지로 그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현장에서 일 하시는 기록연구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록 전공하는 학생들 외에는 국회기록보

존소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자료실이 있어야 된다는 걸 국회기록보존소에서 많이 주장했어요.” (실무자 B)

2014년을 기점으로 정부 3.0 정책 기조에 따라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원문으로 공개하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은 온라인으로 기록을 이용하는데 익숙해진 상황이다(황진현, 임진희, 2015). 이를 인식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일반 이용자가 국회기록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용의 간편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중 하나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기록의 범주가 넓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국회기록보존소의 온라인 원문 구축은 부분 공개를 제외하고 공개 기록물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다. 비공개 기록의 경우 목록이라도 웹 사이트에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 기록물의 원문 구축을 확대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2018년에 원문 구축 량에 비하여 2019년의 원문 구축 량이 더 많았으며 차츰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기록물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하죠 그 다음에 부분 공개도 개인 정보만 가리고 오픈을 하고 비공개는 목록이라도 올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실무자 B)

3.2.2 학술 정보 이용자 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는 국회기록을 학술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술적으로 국회기록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헌정보학이나 기

록학 전공자가 아닌 학술 정보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소수이고 대부분의 연구가 기록학 전공자의 인식 조사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성면섭, 이해영,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이나 기록학을 제외한 분야의 학술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편향을 지양하기 위해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국회기록보존소가 온라인서비스를 시작한 2016부터 2020년까지 다양한 분야의 KCI 등재 국회기록 활용 논문을 확인하였다.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중 국회기록의 활용 비중이 높은 논문의 저자 50명에게 메일을 통하여 인터뷰 참여 의사를 문의하였다. 이 중에서 조교수 1명, 연구원 3명, 박사과정 학생 3명, 석사과정 학생 1명 등 총 8명이 인터뷰 참여에 동의하였다. 이들의 연구분야는 행정학, 정치학, 역사학, 보건학 및 언론학으로 다양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논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국회기록은 회의록이었으며 특정 법안의 입법 과정 혹은 특정 시대에 회의록을 전부 분석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의 국회기록 이용 비율은 응답자 E·F가 20-40%, 응답자 C가 40-60%, 응답자 A·D·H가 60-80%, 응답자 B·G가 80-100%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국회기록을 2회 이상 연구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응답자는 5명(응답자 A·B·C·D·E)이었고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6번 정도 국회기록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학술 정보 이용자들이 국회기록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정보원 선정과 정보이용 방법

(1) 정보원 선정

응답자들에게 연구를 수행할 때 정보원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요소는 신뢰성이었고 다음은 편이성이었다. 정보원 선택 중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응답자는 A, D, E, H이다. 이들은 학술 정보 이용자들은 입수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바탕이 되는 자료 자체의 품질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응답자 A, B, H는 정보 이용에서 편이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방대한 정보의 집합적 제시, 용이한 통합검색, 체계적인 목록 구축, 원문 공개 등에서 편이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검색 방법과 전자자료 이용

응답자의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기에 전자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정보검색 방법과 전자자료를 이용했을 때 불편했던 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였고, 개인의 차이는 있었지만 검색 창등을 통하여 키워드를 검색한 뒤 검색 내 재검색, 생산 기간 조정 등의 검색 과정을 수행하였다. 상세 검색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불리언 연산자 검색이나 기호를 통한 검색 기법 등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응답자 B와 F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원문 구축에서 빠져 있거나 비공개 기록이 묶여 있어 원문 구축이 되어 있

지 않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응답자 C와 E는 온라인에서 다량의 전자자료를 수집할 때 크롤링 방식을 제한하거나 전체 파일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많아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응답자 F는 정보원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전자자료를 찾기 힘들다고 하였고 응답자 G는 다운로드한 전자자료를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고 있기는 하나 너무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 어떤 내용의 파일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답하였다.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수집하는 방법은 API나 웹 크롤링을 이용하는데요. 웹 크롤링은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AA 재단이라고 BB 서비스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사이트를 웹 크롤링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말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응답자 C)

2) 국회기록 및 국회기록보존소의 가치 인식

(1) 국회기록 가치인식

응답자들은 국회기록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B, E, F는 국회기록이 국민이 선출하여 국민들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법이 개정·제정되는 과정 등을 볼 수 있고 공정하게 반영되어 의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보상을 할 수도 있어 민주주의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국회기록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

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자 할 때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B)

응답자 A, C, D는 국회기록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훗날 역사적 사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국회기록은 학술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이라고 하였다. 국회기록은 설문 등으로 알기 힘든 국회의원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마스크처럼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갈 일이 적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부처 간의 쟁점 등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연구적으로 가치 있다고 언급하였다.

“회의록 같은 경우에 부처 간의 쟁점 등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스크 보다 가치가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D)

(2) 국회기록보존소에 대한 인식

8명 중 5명의 응답자들이 두 번 이상 국회기록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에서의 국회기록 이용 비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응답자 대다수가 국회기록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학술 정보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B와 D만 웹 사이트나 방문을 통해 국회기록보존소를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마저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는데 필요한 국회기록의 원문이 구축되어 있

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거나 과거 이용 경험이 좋지 않았던 점이 그 이유로 드러났다.

“국회기록보존소에 따로 연락을 한 적이 딱 한번 있었는데 그게 한 7-8년 된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부처로 넘기고 소관청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용을 안했던 것 같아요.” (응답자 D)

이외에 국회기록보존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해당 기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국회기록보존소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학술 정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용하겠다고 답하였지만 응답자 C와 F는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높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3) 국회기록의 이용 경험

(1) 국회기록 탐색과정

모든 응답자들은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회정보사이트를 통하여 국회기록을 이용해 보았다고 하였다. 이용한 국회정보사이트로는 ‘국회회의록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정보시스템’ 등이 있었다. 시스템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질문에 내부 커뮤니티(동료, 전공 관련 전문가), 검색엔진 검색결과(구글, 네이버) 또는 학술논문의 참고문헌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의안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그 사이

트 자체는 어디서 검색한 것이 아니라 행정학 내부 커뮤니티 자체에서 습득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응답자 A)

국회기록을 연구에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응답자 A, E, F는 3개의 국회정보사이트를, 응답자 B와 D는 4개, 응답자 F와 G는 2개, 응답자 H는 1개의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하였다. 국회정보사이트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던 웹 사이트는 국회회의록시스템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이었다. 응답자들은 시스템 하나를 단독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회의록시스템과 의안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두고 다른 국회정보사이트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로 회의록을 봤고요. 처음에는 회의록을 보기 위해서 국회회의록시스템을 이용을 했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주제들을 찾아 보니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해당 법령이 어떻게 발의가 됐는지 어떤 진행을 거쳐서 법률로 통과되거나 보류되는지 볼 수 있어서 의안정보시스템도 활용했어요.” (응답자 B)

(2) 국회기록의 온라인 접근

웹 사이트를 통한 국회기록의 이용에 대해서 다섯 명의 응답자(A, B, F, G, H)가 국회기록의 공개와 접근이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기록의 정보공개청구나 비공개 기록 이용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모두 비공개 기록을 이용해 본적이 없다고 답하였고 정보공개청구나 열람서비스도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로 열람서비스는 알지 못해 이용

할 수 없었고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과거 경험에서 응답시간과 제공 방법에 대해서 불편을 느꼈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웹 사이트를 통한 국회기록 이용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분산된 시스템, 정보수집과 가공의 어려움, 검색시스템의 문제 등 때문에 기록 이용의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응답자 A와 B는 국회 내에서 너무 많은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이기 때문에 국회기록 이용에 있어 혼란을 느낀다고 하였다. 입법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으로 기록을 찾자 할 때 최소 2개 이상의 시스템을 찾아서 들어가야 하며 단순한 국회기록의 이용도 마찬가지로 답하였다. 또한 시스템을 찾기 위한 가이드도 존재하지 않아, 어떤 시스템에 어떤 기록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알기 힘들어 원하는 기록을 찾기 위하여 오랫동안 여러 경로를 탐색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이 검색, 저 검색 하다가 찾아낸 기억이 나거든요. 공청회 자료들도 활용하긴 했는데 그 자료 찾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저도 그 자료를 어떻게 찾았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계속 찾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찾게 된 것 같아요.” (응답자 A)

응답자 B, D, E는 국회기록을 검색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D는 정책 별 연구에서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다른 정책이 같이 검색되어 원하는 기록을 찾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응답자 B도 안

건명이 제목에 없을 경우에는 키워드 검색으로는 잡히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내용 검색을 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추출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자료가 너무 많아 원하는 자료들을 일일이 전체 회의록을 보면서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였다.

“가족법은 정식 법안 명칭은 민법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록 안에는 민법 개정안으로 하면 검색은 되지만 그게 이제 민법개정안 자료 중에서 가족법을 다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 열어서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민법개정안을 다룬 가운데 가족법과 다룬 것이 안건이었다고 하면 그게 색인으로 들어가 있으면 잡혔을 건데 그게 안건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검색결과가 잡히더라고요.” (응답자 B)

응답자 C, E, F는 국회기록의 수집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많은 학술 정보 이용자들은 법의 입법과정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특정 시대에 전체 회의록이나 특정 위원회에 관한 모든 국회기록 등 엄청난 양의 국회기록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학술 정보 이용자들은 개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파일(한글, PDF)로 되어 있는 국회기록들을 일일이 다운로드해서 정리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회정보사이트 중 국회회의록시스템 등은 크롤링 기법도 지원하고 있지 않아 대량의 국회기록을 이용하기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3) 국회기록 오프라인 접근

응답자 모두 국회기록정보 웹 사이트를 통하여 국회기록을 이용하였고, 방문을 통하여 국회기록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B와 D였다. 방문을 통한 국회기록의 이용은 국회도서관과 입법조사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국회도서관에서 기록을 이용했을 때 기록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질문에는 소장기록물을 찾는 것에 대한 도움을 구하거나 복사와 대출에 대한 소통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후 응답자 D는 방문하여 복잡한 신청과 복사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온라인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4) 국회기록정보서비스 요구사항

인터뷰에서 학술 정보 이용자는 국회기록을 이용하였을 때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하였다. 이에 국회기록 이용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지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검색서비스, 열람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학술 정보 이용자들은 대부분은 방문이 아닌 웹을 통하여 국회기록을 이용하고 있었고 환경적 요인과 편의성 때문에 방문보다는 웹 사이트를 통한 서비스를 많이 제안하였다.

(1) 검색서비스

검색서비스에 대해서 응답자 D와 E는 체계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소장기록물 목록, 기록 검색기능 개선, 주제가이드 제공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국회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만족하나 연구 수행에 필요한 범

령이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나 이슈 및 주요 키워드를 제공하여 학술 정보 이용자가 좀 더 다양한 기록을 접하고 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가끔 정책영역별로 연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키워드만 검색하면 다른 정책들도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책별로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들어가서 브라우징 하는 식으로 이용해본 적이 있기는 한데 좀 더 이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자 E)

국회 검색시스템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느껴 국회정보사이트 검색시스템 자체에 대해 보완에 필요를 느끼는 응답자들(B, D, E)도 있었다. 또한 각 국회기록마다 시스템들이 개별로 존재해서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없어 시스템 혹은 검색 결과의 통합적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웹 사이트들이 조금 더 통합적으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국회도서관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써볼 땐 뭔가 통합적으로 구현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응답자 B)

응답자 A, C, G, H의 경우 검색결과로 기록이 출력되었을 때 여러 논문 DB나 정보제공사이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기록에 대한 부가정보, 비슷한 자료와 연계 및 추천 서비스, 가시적인 검색 결과, 더 정확한 요약 보기 등도 요구하고 있었다.

“다른 자료랑 연계라던가 추천 서비스라던가 정 안되면 국회회의록을사용한 논문 리스트를 띄워 놓는 서비스 있잖아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이런 걸 제공해 준다면 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답자 C)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주제가 이슈다. 라든지 사실은 이게 언론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단편적이잖아요. 회의록에서 텍스트 마이닝 하면 발견되는 키워드들로 약간 가지적으로 나타내서 흐름을 볼 수도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응답자 G)

(2) 열람서비스

응답자 C와 E는 다량의 국회기록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기록 제공 방식이 불편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PDF나 한글 파일이 아닌 학술 정보 이용자가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는 파일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또한 응답자 E는 대부분의 국회기록들이 문서파일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며 음성파일이나 회의 장면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국회기록 제공에 대해서 기대하였다. 응답자 D는 학술 정보 이용자들이 제한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제한적인 이용 목적으로만 허용할 것을 제안하며 학술 정보 이용자에게 더 확장된 국회기록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연구지원서비스

응답자 E, H, F는 가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였으며 국회정보사이트를 이용할 때의 가이드와 국회기록을 연구에 활용할 때 이

용할 수 있는 가이드 두 가지 종류를 언급하였다. 전자의 경우 분산된 국회정보사이트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 후자의 경우 국회기록을 연구에 이용하였을 때 주의사항이나 인용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H는 웹사이트 자체적으로 기록을 저장할 수 없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즐겨찾기, 메모, 사용한 기록을 다시 볼 수 있는 기능과 같은 개인화 서비스가 추가되기를 희망하였다.

(4) 참고서비스 제공

응답자 B는 우리나라 기록관과 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가 해외의 기관에 비하여 약하다고 느끼며 국회같은 큰 기관이라면 전문적인 참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국회기록은 충분히 연구가치가 높은 기록이기 때문에 주제 전문 아키비스트를 두어 지원한다면 학술 정보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4. 국회기록보존소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방안

인터뷰 분석을 통해 학술 정보 이용자들이 국회기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효과적인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국회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조사와 국회

기록보존소 업무 현황, 학술 정보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이용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활성화 방안은 국회기록보존소 인식 개선, 온라인서비스 강화,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4.1 국회기록보존소 인식 개선

4.1.1 온라인 원문구축 확대

인터뷰에 참여한 학술 정보 이용자들은 국회기록이 역사적, 연구적으로 높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기록보존소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과거에 좋지 않은 이용 경험 등의 이유로 인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온라인으로 기록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에 따라 웹 사이트 내 원문 구축 여부가 중요하고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회기록보존소는 온라인으로 구축된 원문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문을 이용하는 것부터 불편한 경우가 많아 추가적으로 어떤 서비스도 바라지 않게 되며 관심도 가지지 않게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 역시 일반 이용자가 국회기록보존소를 폐쇄적이고 접근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 다른 기록관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자에게 국회기록 접근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열람서비스와 온라인 원문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정부 3.0 정책기조에 따라 2014

년 중앙부처 및 광역단체를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원문으로 공개하게 되었으나 국회기록보존소는 다소 늦은 2016년부터 웹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2018년 9월부터 국회기록 원문 일부를 공개하였다. 국회기록보존소에 제헌부터 2004년까지 생산된 공개 기록물만 약 43만건이다(국회도서관, 2020). 그 중 현재 국회기록보존소 웹 사이트에 구축된 원문은 2018년 기준 34,000건, 2019년 기준 75,000건으로 총 109,000건 이며(국회도서관, 2019, 128) 이는 원문 공개 수가 아직까지 부족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국회기록물은 「헌법」 제50조 제1항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불게재가 가능하다는 점과 비공개 회의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비공개 기록과 부분공개 기록이 다른 공공기관 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김유승, 김장환, 2013). 하지만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로 변환하여 비공개 해제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빠르게 웹 사이트에 원문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회기록보존소 웹 사이트에서는 비공개 기록의 경우에 비공개 유형과 총 건수밖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 원문 구축이 어렵다 하더라도 해당 비공개 기록의 목록과 설명이라도 국회기록보존소 웹 사이트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4.1.2 국회기록보존소 홍보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 실무자를 통하여 국회기록보존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외부 이용

자군이 기록 전공자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록 실무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기록을 학술적으로 활용한 이용자를 찾기 위하여 탐색해본 결과 상당수의 학술 정보 이용자가 존재하였다. 또한 학술 정보 이용자 인터뷰에서 여덟 명 중 다섯 명의 학술 정보 이용자가 국회기록을 활용하여 두 번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생각보다 활발하게 국회기록을 연구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 중 절반이 국회기록보존소가 어떤 기관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최근에 시행된 대국민열람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는 물음에 모든 참여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국회기록보존소는 비교적 최근에 기관 웹 사이트를 구축했음에도 국회기록정보콘텐츠 구축, 전시, 최근에 들어 대국민 열람까지 실시하며 이용자에게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실무자를 통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구축된 성과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기록보존소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내부 학술 커뮤니티(전공 관련 전문가, 동료 등)나 선행연구의 참고문헌 등을 통하여 연구와 관련한 웹 사이트 및 정보를 알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국회정보사이트인 국회회의록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정보시스템 등도 같은 방법을 통하여 알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학술 정보 이용자 내부 커뮤니티에 접근하는 방식의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국회기록을 많이 이용하는 학문인 정치학, 역사학, 행정학 등의 학술 단체에게 조언을 구하고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국회기록보존소 자체의 홍보뿐만 아니라 기관의 특정 기록정보콘텐츠나 교육 및 행사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CLA는 의회기록을 다루는 연구자들의 학술 발표(Researcher Talks)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 발표는 영상으로 만들어져 National Archives의 YouTube 채널과 CLA 웹 사이트에서 공개되어 다른 연구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인근 대학교 또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와 협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국회에 대한 여러 주제와 국회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학술 정보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국회기록보존소 자체에 대한 홍보와 함께 폐쇄적인 기관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2 온라인 서비스 강화

4.2.1 국회사무처와 협력체계 구축

학술 정보 이용자인터뷰와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술 정보 이용자는 기록이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가진다고 판단되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ckx-Yu, 2014). 이는 방문보다는 쉽게 국회기록에 접할 수 있는 웹 사이트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웹을 통하여 국회기록을 이용해 본 경

힘이 있는 학술 정보 이용자들은 공통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국회기록을 찾고 이해하기 위하여 한 연구 당 평균 3개의 국회정보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술 정보 이용자들이 다수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각 소속기관인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가 각각 국회정보사이트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국회정보사이트는 40개 이상이며 가장 많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두 기관이다.

이처럼 다수의 국회정보사이트들이 분산적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이용자들은 국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사이트를 파악하기 어려워 자주 이용되는 몇몇 사이트(국회회의록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를 제외하고는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회정보사이트마다 제공하고 있는 국회기록이 중복되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이 따로 존재하지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안에 관련한 기록도 제공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국회기록 통합검색을 지원하고 있지도 않고 전체 국회정보사이트 안내도 찾기 어렵게 되어 있어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셋째, 대부분의 국회정보사이트들이 정보 제공에만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특성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국회사무처가 회의록이나 의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독자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무처 소관 사이트에 있는 기록 및 이용 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한이 국회사무처에 있어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회기록보존소 웹 사이트에서 회의록과 의안 등을 이용할 때 다시 국회사무처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로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일반 이용자 대상 기록정보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비스에 활용할 만한 축적된 이용자 데이터가 많지 않다. 그에 비해 국회 사무처는 2000년 8월 국회회의록시스템 인터넷 서비스 시연회를 가진 후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윤대근, 남태우, 2011). 이처럼 국회기록보존소보다 국회사무처가 일반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된 국회회의록과 같은 정보도 사무처 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기록정보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할 때 국회사무처의 도움 없이는 한정된 정보만 서비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양질의 국회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두 기관 사이에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공공기록물법 제10조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공공표준인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에서 제안하는 소장기록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국회기록보존소가 이용자에게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국회기록보존소와 국회사무처가 활발하게 협업한다면 통합적인 국회기록 검색과 온라인상에서 양질의 국회기록 정보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부처 간 협업 및 공조를 통한 데이터 공유는 민원 구비서류의 감축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창출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다(이민호, 2015).

국회기록보존소와 국회사무처 사이에서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데이터 공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이후 국회기록보존소와 국회사무처 간 파트너십을 제고할 수 있는 공식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MOU 체결이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4.2.2 주제별 국회기록 제공

학술 정보 이용자들은 일반 이용자나 소속기관 내 이용자와는 다른 이용행태를 가지고 있고 기록을 이용할 때 단편적인 정보보다는 광범위한 해석형 정보를 필요로 한다(Pugh, 2004, 43). 이처럼 학술 정보 이용자 인터뷰에서도 이용자들은 단일의 국회기록만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관심 법률 혹은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 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학술 정보 이용자가 키워드 검색과 함께 브라우징을 시도하여 국회기록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물 종류에 따라 의안, 회의록, 간행물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제공하거나 국회의 대수에 따라 탐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학술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 제공은 주제 중심적인 방식이며 이러

한 요구사항에 응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주제의 기록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국회기록보존소에 기록정보콘텐츠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주제별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주요기록물을 콘텐츠화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56개의 주요기록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공하고 YouTube에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홍보로도 이어져 국회기록보존소의 인식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다만 각 기록정보콘텐츠는 시리즈로 존재하는데 체계적인 범주 없이 업로드 순서대로 웹 사이트에 나열되어 있어 이용자가 주제에 따라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회를 말한다' 특집의 경우 8편이 제작되었는데 업로드 순서로 제공되다 보니 다른 주제의 콘텐츠가 중간에 섞여서 보기에 불편하다. 심지어 한 페이지 당 10개씩밖에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용자는 콘텐츠 명을 모를 경우 모든 페이지를 열어서 확인해 봐야 한다. 따라서 관련 기록정보콘텐츠끼리 범주화하여 주제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4.2.3 국회기록 수집 및 분석 지원 서비스 제공

인터뷰에 참여한 이용자들 중 몇몇은 다량의 국회기록을 가지고 양적 연구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은 복잡한 국회기록 수집과정과 수집을 통해 제공받은 파일 형식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다량의 국회기록을 수집하고자 할 때 국회정보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회기

록은 원문을 다운로드해야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이용자가 일일이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해야 하고 다운받은 기록이 원하는 기록이 아닐 경우가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웹 크롤링 방법을 이용하려는 학술 정보 이용자들도 있지만 국회정보사이트 대부분이 웹 크롤링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결국 학술 정보 이용자는 엄청난 노력을 들여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 혹은 구입하여 국회기록을 수집할 수밖에 없다.

국회기록이 제공되는 파일 형식에도 문제가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를 포함하여 여러 국회정보사이트들은 이용자에게 한글 파일과 PDF 파일을 통하여 국회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파일은 보기에는 편리하지만 학술 정보 이용자가 텍스트 분석을 할 경우 다시 변환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술 정보 이용자는 국회기록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CLA는 매 의회가 끝날 때마다 2년 동안 모든 의회 웹 기록들을 'Congressional Web Harvest'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웹 사이트에서는 학술 정보 이용자나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크롤링 도구 기능 및 크롤링 되는 서버 환경, 기능 제한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의회기록 수집 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이처럼 크롤링이 가능한 서버 구축이 어렵다면 적어도 국회기록 제공 파일을 PDF나 한글 형식이 아닌 텍스트 분석이 용이한 파일을 제공하거나 특정 위원회의 기록이나 특정 시대의 기록을 일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학술 정보 이용자의 국회기록 수집과 분석을 도울 필요가 있다.

4.3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

4.3.1 개인화 서비스

인터넷이 확산되고 전자자료가 많아짐에 따라 이용자는 수많은 정보 중 자신의 정보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강혜경, 박재홍, 김용, 2010).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에서도 이용자가 목적에 맞는 기록을 수집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검색한 기록에 대한 연계 국회기록이나 추천 기록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또한 기록을 바로 다운로드해 저장하기보다는 웹사이트 자체에서 관심 있는 기록 등록 혹은 메모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는 학술 정보 이용자들이 웹 사이트 내에서 개인 연구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LA의 경우 간단한 로그인 과정만 거친다면 원하는 기록을 선택하고 개인 목록함에 저장하여 살펴보고 그중 필요한 기록을 한 번에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도 국회기록의 접근은 자유롭게 제공하되 간단한 로그인을 통하여 학술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들을 개인 목록에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 사용 기록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심 자료와 연계해 이용자 맞춤형 추천 기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4.3.2 연구가이드

인터뷰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국회기록을 연구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국회기록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학술 정보 이용자를 위한 연구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가이드는 그룹이나 시리즈 단위에서 기록물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다. 이러한 가이드는 이용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기록물을 확인하고 확인한 기록물에 대해서 인벤토리를 참조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윤희, 2007). 국회기록보존소는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국회기록 이용에 대한 간단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국회기록물의 범위', '문서와 기록물의 차이', '국회기록정보콘텐츠의 정의', '검색한 공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 등 간략하고 요약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사례조사 기관인 CLA와 PA의 웹 사이트에서는 상세한 연구가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CLA의 경우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며 소장·비소장기록물, 온라인 제공 기록물·온라인화 되지 않은 기록물, 기록에 접근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술 정보 이용자에게 비공개 국회기록에 대한 개요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생산자에 따라 하원, 상원, 위원회로 구분하여 이용 기록별로 연구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목록에 대한 검색기능도 지원하고 있어 편리하다. PA에서 제공하는 연구가이드는 가장 많이 조사된 주제 및 문서에 대해서 안내한다. 각 주제에 대하여 포함 정보와 연구를 시작하는 방법, 기록 접근 방법 등에 대해서 나타낸다. 또한 CLA와 PA 모두 인용과 저작권 사항에 관한 인용가이드도 제공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단순히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용자를 응대하기보다는 학술 정

보 이용자를 위하여 상세한 연구가이드를 도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이드는 기록의 접근 방법과 소장·비소장기록물, 온라인·오프라인 기록 등의 목록 및 개요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장 많은 연구에 이용된 주제를 파악하여 주제별 연구가이드를 생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추가적으로 국회기록 인용과 저작권에 대해서도 국회기록보존소 웹 사이트에 제시하여 학술적 이용자들의 기록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5. 결론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주로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회의록이나 의안기록 등의 국회기록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기록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 학술 정보 이용자는 국회기록을 이용하여 학술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간접적인 기록 이용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기록관리기관의 존재 의의를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비스 대상자이다. 하지만 학술 정보 이용자들은 국회기록의 구조상의 복잡성, 접근의 제한 등의 이유로 국회기록의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국회기록 이용자 중 우리사회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학술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밀기록물이 많은 국회기록의 특성상 국회의 핵심 기능과 연결되며 공개가 원칙인 입법활동기록으로 국회기록을 한정하였으며 해외 사례조사, 실무자와 이용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술 정보 이용자는 국회기록이 역사적, 연구적으로 높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국회기록을 관리하는 국회기록보존소에 대해서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 원문 구축 확대와 홍보를 통한 국회기록보존소 인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학술 정보 이용자가 편이성을 추구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기에 국회사무처와 협력체계 구축과 주제별 국회기록 제공, 국회기록 수집 및 분석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술 정보 이용자에게 개인화 서비스와 연구가이드를 지원하여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기록을 입법활동기록으로 제한하여 대부분의 학술 정보 이용자 인터뷰 대상자가 활용한 기록이 회의록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국회기록보존소 학술 정보 이용자들의 기록정보 이용행태 및 요구 사항과 국회기록보존소의 현실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정보서비스 계획 수립 및 학술 정보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혜경, 박재홍, 김용 (2010). RSS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7-29. <http://doi.org/10.14404/jksarm.2010.10.2.007>
- 국회도서관 (2019).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 김유승, 김장환 (2013). 국회기록보존소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81-106. <http://doi.org/10.14404/jksarm.2013.13.1.081>
- 김유승, 설문원 (2013). 국회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25-48. <http://doi.org/10.4275/kslis.2013.47.4.025>
- 김장환, 이은별 (2015).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103-136. <http://doi.org/10.14404/jksarm.2015.15.2.103>
- 김지현 (2013).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01-225. <http://doi.org/10.14404/jksarm.2013.13.2.201>
- 김태영, 김건, 심갑용, 김용 (2014).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2), 83-115. <http://doi.org/10.14404/jksarm.2014.14.2.083>
-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 (2006).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

- 관리학회지, 6(1), 65-92. <http://doi.org/10.14404/jksarm.2006.6.1.065>
- 성면섭, 이해영 (2020). 기록관리기관 이용 학술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119-138. <http://doi.org/10.14404/jksarm.2020.20.3.119>
- 윤대근, 남태우 (2011).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143-163. <http://doi.org/10.14404/jksarm.2011.11.2.143>
- 윤은하, 배삼열, 심갑용, 김용 (2014).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학술 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265-294. <http://doi.org/10.14699/kbiblia.2014.25.1.265>
- 이민호 (2015).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통합 추진 효과성의 영향요인 탐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23-52.
- 이원영 (2002). 의회기록의 특질과 종류. 기록학연구, 9, 110-142. <http://doi.org/10.20923/kjas.2004.9.110>
- 임여아 (2008). 기록물관리기관의 연구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정은희, 차미경 (2020).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311-33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311>
- 정태영, 김유승 (2012).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141-165.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1.141>
- 조윤희 (2007). 기록물관리기관의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황진현, 임진희 (2015). 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위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연구. 기록학연구, 46, 325-363.
- Aronsson, P. (1981). Congressional records as archival sources. *Government Publications Review*, Part A, 8(4), 295-302.
- Hockx-Yu, H. (2014). Access and scholarly use of web archives. *Alexandria*, 25(1-2), 113-127. <https://doi.org/10.7227/ALX.0023>
- Miller, C. P. (2019). 미국의회기록 컬렉션 관리 매뉴얼. 서울: 선인
- Parliamentary Archives (2020). *Parliamentary Archives Annual Review 2019-2020*.
- Pugh, M. J. (2004). 기록정보서비스. 서울: 진리탐구.
- Rhee, H. L. (2015). Reflections on archival user studie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54(4), 29-42. <https://www.jstor.org/stable/refuserserq.54.4.29>
- Tibbo, H. R. (2003). Primarily history in America: How U.S. historian search for primary materials at the dawn of the digital age. *American Archivist*, 66(1), 9-50. <https://doi.org/10.17723/aarc.66.1.b1203701lg718n74>

[관련 법령 및 공공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1호.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v1.1), NAK 21:2018(v1.1).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규칙 제164호.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규칙 제222호.

국회법, 법률 제17756호.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 기능 및 업무절차 (v2.1), NAK 9:2021(v2.2).

[웹사이트]

국회기록보존소 (2021.02.28),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출처: http://archives.nanet.go.kr/contentsEtc/contentsEtcView.do?curr_menu_cd=0104010000

국회도서관 (2021.04.23), 국회도서관 보도자료(20200731)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물 대국민 열람 서비스

실시, 출처: <http://archives.nanet.go.kr/bbs/bbsView.do#none>

미국 입법 아카이브센터 (2021.05.14), 입법 아카이브센터 홈페이지.

출처: <https://www.archives.gov/legislative>

열린국회정보 (2021.03.20),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출처: <https://open.assembly.go.kr/portal/mainPage.do>

영국 의회아카이브 (2021.05.14), 의회아카이브 홈페이지, 출처: <https://archives.parliament.uk/>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2021.05.02),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Hwang, Jin-hyeon & Im, Jin-hee (2015). A study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affiliated public institutions for systematic disclosure of original information. Archives Research, 46, 325-363.

Im, Yeo-a (2008). A Plan to Activate Research Support Services of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National Archiv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eong, Tae-Young & Kim, Yoo-Seung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Journal of the Korean

- Record Management Association, 12(1), 141-165.
<http://doi.org/10.14404/jksarm.2012.12.1.141>
- Jo, Yoon-hee (2007). A Study on the Plan to Promote the Use of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Master's thesis, Centr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Jung, Eun-hee & Cha, Mi-kyung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31(1), 311-335. <http://doi.org/10.14699/kbiblia.2020.31.1.311>
- Kang, Hye-kyung, Park, Jae-hong, & Kim, Yong (2010). A study o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SS-based record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cords Management*, 10(2), 7-29. <http://doi.org/10.14404/jksarm.2010.10.2.007>
- Kim, Jang-hwan & Lee, Eun-byul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informa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cords Management*, 15(2), 103-136.
<http://doi.org/10.14404/jksarm.2015.15.2.103>
- Kim, Ji-hyun (2013). A study on the search, access and research support service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Record Management Association*, 13(2), 201-225. <http://doi.org/10.14404/jksarm.2013.13.2.201>
- Kim, Tae-Young, Kim, Gun, Shim, Gap-Yong, & Kim, Yong (2014).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research support service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cords Management*, 14(2), 83-115.
<http://doi.org/10.14404/jksarm.2014.14.2.083>
- Kim, Yoo-seung & Kim, Jang-hwan (2013).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du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Record Management Association*, 13(1), 81-106. <http://doi.org/10.14404/jksarm.2013.13.1.081>
- Kim, Yoo-seung & Sul, Mun-won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information online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Literature and Information Society*, 47(4), 25-48. <http://doi.org/10.4275/kslis.2013.47.4.025>
- Lee, Min-Ho (2015). Explor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sharing and system linkage/integration promotio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26(2), 23-52.
- Lee, Won-young (2002).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parliamentary records. *Archives Research*, 9, 110-142. <http://doi.org/10.20923/kjas.2004.9.110>
- National Assembly Library (2019). National Assembly Library Annual Report.

- Seo, Eun-Kyung, Jeong, Kyung-Hee, & Choi, Sang-Hee (2006). A study on user-centered use of recorded information and activation of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cords Management*, 6(1), 65-92. <http://doi.org/10.14404/jksarm.2006.6.1.065>
- Sung, Myeon-seop & Lee, Hae-young (2020).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e behavior of academic researchers using record management institutions. *Korean Journal of Record Management*, 20(3), 119-138. <http://doi.org/10.14404/jksarm.2020.20.3.119>
- Yoon, Dae-Geun & Nam, Tae-Woo (2011).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Archives Management*, 11(2), 143-163. <http://doi.org/10.14404/jksarm.2011.11.2.143>
- Yoon, Eun-ha, Bae, Sam-yeol, Shim, Gap-yong, & Kim, Yong (2014). A study on the use of academic information through request for disclosure: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25(1), 265-294. <http://doi.org/10.14699/kbiblia.2014.25.1.265>